

설날 가정예배

예배부름 인 도 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복
을 빌어주고, 세월을 돌아보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보내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의 마음 안
에 새로운 바람과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
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서
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깨
닫게 하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 이

성경봉독 창세기 2:18~23 말 은 이

말 씀 돕는 배필 말 은 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시간을 내어 모여서 예
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
하루 새 날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
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
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서로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에게 짝이 있었는데 아담에게만 짝
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습니
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4:7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 상대를 신경쓰는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
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
인공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
이의 관계를 주도해나가십니다.

②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은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
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관계를 맺고 교제하
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
과 함께 했지만, 진정으로 아담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건 하와 뿐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빠져듭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며 감탄하고, 심장과 가까운 느낌을 받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과, 생명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③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피조세계의 질서는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멀어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모습과 속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에덴의 지도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동기와 생각들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태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교제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 관계들을 사랑으로 소통한다면 2024년 새해는 모든 사람들과 돕는 배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찬 송 261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2024 설날 가정예배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8]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담임목사 강용규
Rev. Kang Yongkyu